**116회 정기대공연 ‘춘천거기’ 무대감독 인수인계서**

<인수인계에 앞서>

기존의 극회 내에서 무대 감독의 역할이 단순히 무대디자인과 제작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무대감독과 무대팀장의 역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무대 감독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무대감독의 역할은 연출 및 기획의 그것과 동등한 영향력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출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많은 의견들과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행하는 공연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도 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극을 비롯한 많은 무대 공연 (뮤지컬, 오페라, 무용극, 연예인 콘서트, 지방행사 등도 모두 포함)을 많이 봐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매체 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작품들도 봐야 한다. (설령 쇼미더머니나 오디션 프로그램이라 해도)

하지만 작품만을 많이 보는 것은 실현성이 낮은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 상황과 이론적인 공부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각 분야의 스텝과 제시된 의견을 발현시킬 수 있는 시도와 실험이 아주 중요하다.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에는 아주 아주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재정적 상황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실험과 시도를 할 때도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을 미리 많이 해두길 바란다.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스텝과의 친밀도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해야 하고 그 대화가 결코 공연적인 것에 치우쳐지거나 혹은 사적인 공감대 형상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극회 내의 무대 감독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분야의 스텝들이 행한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모든 스텝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겠다.

1.공연초반

-작품 파악하기

-연출의도 구체화하기

-공연의 상태 파악하기

-작품 파악하기

기본적인 작품의 내용과 상황을 파악한다. 주된 메시지, 스토리라인, 작품에 담긴 호흡, 분위기 등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소의 변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몇개의 캐릭터가 나오는지, 시대는 언제인지, 실내인지, 실외인지, 추상무대가 얼마나 허락된 작품인지 등등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래도 어떤 봐야할지 모르겠다면 캐스트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읽어보면 된다. 무대, 조명, 음향, 의소분, 기획, 연출 모두다!

캐스트의 입장에서 읽어보는 것? 미안하지만 하등 도움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무대 위에서 실현됐을 때의 그림을 여러 각도에서 상상하고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예시까지 찾아두어야 한다. 예시는 당연히 이미지나 영상화되어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듯 작품 파악이 되면 연출의 생각이 자연스레 궁금해질 것이다. 그 작품은 연출이 선택했으니깐. 어떤 패티시를 실현하려고 이 작품을 골랐는지 물어볼 차례다.

-연출의도 구체화하기

왜 연출의도 파악하기가 아니라 구체화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안궁금해도 말해줄거다. 연출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그의 머릿속을 열어서 그 느낌까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아주 좋겠지만 대부분의 연출들은 자신의 의도를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다. 이게 진짜 힘들다. 연애할때도 느낌으로만 때려맞춰서 대화하다보면 서로 개소리, 헛소리하기 일수니깐.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작품파악하기를 하며 반드시 무대감독이 된 나의 그림을 3~4개 정도 아주 구체적으로 가져간다. 그럼 연출이 선택지가 생긴다. 자기가 생각한 답이 없으면 연출본인도 또다른 선택지를 제시한다. 그래서 딱! 선택이 되면 편하겠지. 그런데 그럴 일? 절대 없다. 끝까지 싸운...아니 논쟁한다. 우리가 모두 같은 의미의 어휘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살아오는 일생에서 경험의 차이때문에 같은 단어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아주 많다.(단적인 예가 연애할 때라고 이미 말했다.) 고로 연출의 의도를 구.체.화 시키는 작업은 아주 힘들고 어렵다. 여기서 전제는 서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연출뿐만 아니라 다른 스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못 알아들을거다. 엄청.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게 2가지 있다. 첫번째는 통일성이다. 각각의 그림에서 좋은 것만 선택하다보면 전체 그림이 피카소 저리가라하게 되어 있거든. 그 통일성은 항상 유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꼭.

두번째는 보편성이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인간은 아주 다르다. 연출, 무대감독 둘의 생각이 일치했다고 해서 절대 보편성을 갖지 않는다. 보편성을 가진다는 것이 결코 평범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일치된, 합치된 생각을 관객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효과적이고 효율적 방식이 무엇일지를 생각해야한다. 뜬구름잡는 헛소리는 공중분해된다.

-공연의 상태 파악하기

공연의 상태 파악하기는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배우의 수, 각 스텝별 인원수, 공연기간, 공연장, 예산 등은 계획 수립에 초석이 되므로 당연히 항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공연진의 수준이다. 단순히 평가질하자는 것이 아니다. 수준에 대한 평가는 하되 낙인을 찍어서는 안된다. 적재적소에 개개인이 가진 능력치를 극대화시키고 배치하고 양성하는 것이 극회에서 무대감독이 아니라 해도 중요한 것이다. 회사에서도 각 직급에 맞게, 경험치에 맞게, 성격적 특성에 맞게 사원을 활용한다. 하나의 공연이 원할하게 진행되기 위해 이 과정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내가 이번 공연에서 이를 알기 위해 했던 것이 각 팀별 회의를 가진 것이다. 그럼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몇가지는 꼭 확인해야한다. 일단 극회내에서의 공연 경험. 몇번했는지 무슨 분야를 했는지 어떤 공연을 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캐스트만 해본 것은 사실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공연을 했는지는 그 공연의 난이도 때문이다. 공연진 수가 적어 일당백을 해야했었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도 해봐야 했던 공연이 수두룩했으니깐.

또한, 얼마나 많은 작품을 봤는지도 중요하다. 종류도 중요하지만 실은 극장의 규모가 더 중요하다. 대극장인지, 중극장인지, 소극장인지, 야외무대였는지가 아주 중요하다.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대극장뮤지컬을 많이 보면 극회에서 실현이 어려운 몽상에 가까운 제안을 하기도 한다. 힘들다. 또한, 빈도나 본지 얼마나 되었는가도 알아야한다. 인간은 망상의 동물이고 미화를 잘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거든.

개인의 성향파악도 필요하다. 습득력이 빠른지, 센스가 있는지, 열의가 있는지, 피동적인지, 체력은 좋은지, 혹시 이번 공연에 바쁘지는 않은지.

이게 왜 필요한지는 네 글자로 설명이 가능하다. 적재적소.

습득력이 빠르고 센스는 있으나 피동적이고 열의가 부족한 사람은 많이 부르고 시키고 해보게 하면 된다. 열의는 있는데 센스도 없고 습득력도 떨어지는데 체력도 안좋은 사람은 센스있고 친화력좋은 사람과 매칭시켜서 둘이 같이 해야하는 작업을 많이 시키면 된다. (매칭력도 무대감독의 능력이다.) 참, 연락은 되도록 개별적으로, 소수로 구체적인 용건으로 해야 좋다. 무시해도 될만한 것이 아니라 신경쓰여서 딴 일 못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공연초반에 해야하는 준비작업이다. 길지만 초반이 잘 되어야 중,후반이 편하다.

2. 공연중반

-실험과 결과, 피드백 그리고 반복

-스텝단합대회

-실험과 결과, 피드백 그리고 반복

전체적인 파악이 되었다면 이제 실전이다. 각 팀별회의를 연출과 함께 진행하면서 구체화된 내용을 시도하고 실험하게 만든다. 무대팀에서는 무대디자인을 미니어처로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색채를 입히고 무대위에서 구현되었을 때를 실제로, 누구나,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명팀에서는 생각하는 효과가 실제로 그 느낌이 나는지 가지고 있는 기기와 재료들로, 없다면 실제 시장조사하면서 본인들이 파악하고 연출에게 보여주면 된다. 음향은 효과음 작업을 다 해놓고 연습을 많이 보고 연출이 혹시 필요하다고 할지도 모르는 부분의 음향을 다 찾아둔다. (다시 말하지만, 선택지가 많은 와중 고르는 것 쉽지만 없는 선택지를 공연이 코앞인데 하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다.) 의소분팀은 캐스트의 체형, 얼굴형, 피부톤, 캐스트 개개인의 분위기와 맡은 역할의 갭을 파악하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커버해서 그 캐릭터의 갭을 줄일 수 있는 실제 이미지를 가져온다. 캐스트 개인이 소지한 옷도 확인한다. 116회 의소분이 잘했던 것은 각 캐스트의 sns를 확인해서 그 느낌을 살린 옷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기획에게는 끊임없이 스케줄을 물어보고 예산안을 확인하고 보조인력을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해서 최종 결과물을 연출과 확인한다. 그럼 피드백이 온다. 싸운..논쟁한다. 그럼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보강할 것은 보강해서 최종-1 결과물을 연출과 확인한다. 그럼 또 피드백이 온다. 그럼 또 논쟁한다. 그리고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진짜최종결과물을 가져간다. 확인한다. 피드백이 온다. 논쟁한다.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한다. 진짜리얼최종 결과물을 가져간다. 확인. 피드백. 싸움. 반복.

이 과정이 언제 끝나냐고? 막공때까지 안 끝난다. 근데 싸우지마라. 다른거다. 모두다 방향은 하나다. 관객이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치 안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하는 작업이다.

-스텝단합대회

두말할 것 없다. 존.나. 중요하다. 이유는 이미 서두에 말했다. 패쓰.

3. 공연 후반

-개고생

-관객의 눈

-개고생

말 그대로 개고생 시작이다. 공연 초반에 모든 스텝에게 인지시켜라. 개고생의 날이 곧 다가온다고.

실제 극장의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난 공연들의 인수인계서를 필독서처럼 잘 외우고 있어야 한다. 극장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안된다. 대비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무대감독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진다. 그때 그때 발생된 돌발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 날라 갔다 열받는다 다 썼는데) 1안을 대신할 2안, 3안을 생각해내야 한다. 2안, 3안은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공연 중반에 반복되었던 연출과 스텝과의 대화에서 나왔었지만 사장된 의견들을 기억해두면 좋다.

계획을 아주 잘 세워야 한다.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극장에 2~3일정도 미리 들어갈 수 있다면 아주 좋지만 (망할 학교) 불가능하다. 계획을 세울때는 예상하는 작업시간의 3배로 짜야한다 무조건. 보조인력이 왔을 때 잉여력을 발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이때 무대감독은 한가지 일만 하면 안된다. 무대일을 하면서도 조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음향은 완벽하게 준비가 된건지, 의소분은 극장내에 완비가 된 상태인지, 캐스트는 연습을 하고 있는지, 연출진은 어디에 있는지, 기획은 기획부스에 있는지 항상 신경쓰고 있어야 한다. 피곤하다. 각오해라.

또한 무대감독은 안전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다치면 그 공연은 망한거다. (더 길게 썼는데 기억 안난다. 망할 저장 기능. 그냥 말로 물어봐라.)

-관객의 눈

실제 공연에 돌입하게 되면 관객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웃기지만 연습을 많이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는 관객을 모시고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관객의 몰입도를 깨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해서는 안된다. 자기위로성 공연이 되기를 바란거라면 할말 없지만. 조도가, 극장의 청결도가, 무대의 마무리가, 음향의 크기가, 의상의 연결이, 야광테이프의 스타워즈가, 관객의 입장에서 어색한지 체크하는 거다. 미안하지만 연출은 이거 못 본다. 연습을 계속해서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연습 많이 보지 말라는 거다. 연습을 아예 안보는 건 멍청한 거고.

<마무리>

나는 무대감독은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하는 상대자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대화의 논지와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 많이 싸워라. 감정적인 싸움말고 너와 나, 우리, 그리고 관객을 위한 싸움을 하면 된다.

작성자 48기 라영란 010-8966-8495